

집과 사람

나주 남평 우산리 박관섭씨 댁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박관섭씨 집 전경. 뽕죽지붕의 단아한 목조주택이 자연과 어우러져 그림같은 코골을 스치는 편백향이 마음을 맑게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벽 하늘에
산이 눈을 뜹니다
산은 가녀린 별빛에
세수를 하고
팔을 벌립니다
아직 찬이슬이
산허리로 흐릅니다
이슬 사이로
갓나온 바람이 흐르고
산새들이 내려옵니다
산은 동녘을 살피며
별아래 여름을 떠올립니다
어제보다 산이 가깝습니다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드들강변을 휘돌면 마을 한 켠에 그림같은 미국식 목조주택이 눈에 띈다. 농촌공사를 퇴직한 박관섭(58)·김영(53)씨 부부의 보금자리다. 위의 글은 박씨 집을 방문한 한 지인의 예찬이다.



햇살 한가득, 편백향 그윽한 '웰빙 목조주택'

편백향 코골에 스치고...

박씨 집에 들어서면 편백향이 먼저 손님을 맞는다. 아직 정원을 꾸미지 않아 다소 덩그러니지만, 아늑한 햇살과 앙상한 감나무, 대나무 숲 등 주변 풍광과 어우러져 그림같다.

박씨는 지난 2008년 7월 이곳에서 집들이를 했다. 수년 전 도시생활을 접고 남평읍내로 내려왔지만 그곳이 도시정비지구로 편입되면서 박씨는 이곳에 터를 잡게 됐다.

박씨 집은 2천150㎡(650평) 대지에 건평 148㎡(45평), 2층 경량목구조다. 1층에는 방 2개, 거실, 주방과 보조주방, 욕실, 다용도실이 있으며, 2층은 게스트룸이다. 동남향으로 평당 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박씨 집의 포인트는 거실이다. 집안 한 가운데 위치한 여느 집과는 달리 이 집 거실은 남쪽으로 치우쳐 있다. 자연을 품에 안기 위해서란다.

"거실이 집안 가운데 있으면 3개 면은 막힐 수밖에 없죠. 그게 싫었어요. 가장자리로 옮겼더니 동쪽과 남쪽이 열려 자연스럽게 자연을 품에 안게 됐죠. 또 하루종일 햇볕을 쬐 수 있게 됐어요. 침실보다는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거실에 동창(東窓)과 남창(南窓)을 뒀다. 자연스럽게 주변이 열렸다. 옆집 대나무숲도, 앞집 앙상한 감나무도, 박씨의 정원수가 됐다. 하루종일 햇볕이 들어와 한겨울에도 따스하다.

거실 천장은 피라미드형으로 높적이다. 미려하기도 하지만 공기 순환을 생각해서다. 거실 한켠엔 벽난로가 놓여져 훈훈하다. 바닥은 은은한 대나무 소재를 썼다.

통유리 동·남창 거실 자연을 품고
옆집 대나무숲까지...주변 온통 정원
평당 500만원 발품 팔아 직접 설계

2층 게스트룸에 들어서면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또 천창(天窓)으로는 맑은 하늘이 열렸다. 이 창으로 밤엔 달도 보고 별도 본다.

박씨는 이 보금자리를 위해 수 년간 공을 들였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등 전국 유명한 전원주택지를 찾아 발품을 팔았다. 이 집의 모델은 경기도 양평의 한 중견기업 회장 집이다. 하지만 집안 구조는 박씨가 직접 설계,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몄다.

시공도 박씨가 직접 거들었다. 설계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은 집을 지으면서 그때 그때 보완했다. 그만큼 손길이 배어 더 정이 가고 만족스럽다.

집은 소유가 아닌 함께 할 따름이다

"집은 소유가 아닙니다. 함께 할 따름이죠. 자연과 벗하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죠."

집에 대한 박씨의 생각이다. 박씨 부부는 아파트에서 20여년간 살았다. 확실히 빈집감이 싫어 전원생활을 택했다.

박씨는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인들에게 "마을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사람과 멀어지면 금방 외로워진단다. 박씨는 또 "도심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고 덧붙였다. 별장이나 주말농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로부터의 해방

박씨 집은 미국식 목조주택이다. 집을 지탱하는 구조재를 나무로 짠 집이라는 뜻이다. 겉치장만 나무 소재로 했다고 목조주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목조주택은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의 유해성으로부터 해방된 그 자체가 '웰빙'이다. 천식, 알레르기, 피부병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

목재는 외부의 하중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진동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상황 분석에서도 목조의 내구성과 안전성은 증명됐다.

내구 연한도 200년 이상 끄떡없다. 단열재의 설치도 쉽고 접합부위의 밀폐성이 뛰어나 에너지 효율도 높다. 외부 도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리가 필요치 않고, 파손시 부분 수리가 용이해 경제성도 높다.

불에도 강하다. 나무는 불에 타기 쉬운 소재라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전문가들은 화재시 연소의 진행속도나 탈출 가능성, 집이 무너지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보다 훨씬 불에 강하다는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느 집과 달리 거실이 중앙에 있지 않고 남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하루종일 자연을 품에 안고 싶어서란다(위). 아래는 편백나무 목재로 장식한 1~2층 계단.

Advertisement for 'New Concept of Foundation Protection and Structural Reinforcement' (최신개념!!) by Hwanghyeon Engineering & Construction. It features three main points: 1. Foundation Protection, 2. Structural Reinforcement, and 3. Foundation Settlement Prevention. The company is located at 100, Hwanghyeon-dong, Gwangju.

Advertisement for 'Hwanghyeon Education Center' (황현교육원) featuring a 'Success Seminar' (성공세미나) and 'Success Education' (성공교육). It includes a table with details about the seminar and education programs, such as date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wanghyeon Engineering & Construction' (황현엔지니어링) featuring a 'Specialized Vehicle' (전용운행차) and 'Specialized Vehicle' (전용운행차). It includes a photo of a blue and yellow vehicle and details about the company'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